

환단원류사

책 소개 : 저자 朴 民宇

환단원류사

한民族 1만 2천 년 太古史

桓檀源流史



朴民宇 著

桓민족 태고사에 빛나는 東夷의 역사, 빛의 땅 靑丘에서 일 만 년을 이어온 위대한 우리민족에 역사, 만고불변의 진리는 天符印을 가진 桓민족의 지혜와 저력 속에 불타고 있다. 그것이 빛의 자손, 광명의 나라 임을 밝히고 있다.

크기 : A4(표지컬러)

전 550페이지

정가 55,000원

[환단원류사 구매 안내]

* 전화 접수: 010-2875-3808

* 문자 접수: 010-2875-3808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박민우)

* 정가 : 55,000원

환단원류사

한民族 1만 2천 년 太古史

朴 民宇 著

桓민족 태고사에 빛나는 東夷의 역사, 빛의 땅 靑丘에서 일 만 년을 이어온 위대한 우리민족에 역사, 만고불변의 진리는 天符印을 가진桓민족의 지혜와 저력 속에 불타고 있다. 그것이 빛의 자손, 광명의 나라임을 밝히고 있다.

	목 차
1. 序 -----	011
2. 水源客 / 詩 -----	012
3. 실담어는 무엇인가? -----	014
 본 문 -----	 018

제 1장 동이(東夷)는 천문학자

1. 지구의 소리 -----	018
2. 무우(Mu) 제국의 상징 M -----	020
3. 동이(東夷)는 천문학자 -----	027
동이(東夷)의 본뜻 -----	030
이(夷)의 원형은 물레이다 -----	032
東夷는 뿌리이다(울곤학회) -----	034
4. 동이(東夷)족 문자를 발명하다 -----	035
천제울국(天帝苑國)(울곤학회) -----	039
5. 사투리와 역사의 모순 -----	049

제 2장 천부인(天符印)과 무(巫)의 근원

1. 마고성(麻姑城)과 神의 시대-----	053
2. 부도지(符都誌)와 천부삼인(天符三印) -----	057
3. 최초의 인류 마누스(Manus) -----	064
4. 무(巫)의 근원 -----	072
마누스(Manus)와 힌두(Hindu) 우주관 -----	077
봉선(封禪)의 유래 -----	084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정의(울곤학회) -----	087

제 3장 천부인(天符印)과 한民族

1. 천부인(天符印)은 한民族 삼원일체(三源一體) 사상(思想) --	092
경천애인지(敬天愛人地)는 천(天), 인(人), 지(地) -----	098
2. 왜 천인지(天人地) 인가? -----	101
3. 상제(上帝)는 한民族 최고의 神 -----	104
4. 인류의 역사는 한民族의 역사다 -----	107
개벽의 시간표 역(易) -----	107
흑피옥(黑皮玉)은 무엇인가? -----	114
지구대격변 지축이동-----	120

제 4장 생명 탄생의 비밀

1. 멸종과 진화(인터넷 자료) -----	127
2. 삼성기(三聖紀)와 흑수(黑水) 삼위태백(三危太白) -----	140
흑수의 발원지 -----	146
삼위태백(三危太白)이란 -----	150
3. 한자(漢字)는 싯담어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문자 -----	153
4. 생명이 탄생하는 물, 빛깔호는 흑수(黑水)이다 -----	160
생명의 원천은 물이다 -----	160
생명의 호수 빛깔호 -----	166
마고의 별과 북두칠성 -----	167
마고(麻姑)와 직녀(織女) -----	171
끝없는 생명활동을 하는 빛깔호 -----	172
빛깔호의 물개와 매머드는 대홍수를 말해준다 -----	175
동이족의 기원에 관한 추론 -----	179
5. 한民族과 콩의 기원-----	180
한民族의 콩 세계 일주를 하다-----	183
희말라야는 세계 종(種)의 중심-----	185
동이족의 나라 一名 極樂之國 -----	187
'쿠이(Kui)'는 싯담어로 꾸루(Kuru) . 구리(句麗)이다 -----	188

제 5장 웅상(雄常)과 부상(扶桑)

1. 부상(扶桑)-----	190
웅상(雄常)과 부상(扶桑) / 詩 -----	190
부상(扶桑) -----	192
부상국(扶桑國)에 간 사람들 -----	203
사마 천(司馬 遷) /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	213
갈홍(葛洪) / 신선전(神仙傳)-----	214
규원사화(揆園史話) / 단군기(檀君紀) 발췌-----	217
제왕년대력(帝王年代歷) / 단군기(檀君紀) 발췌 -----	218
열자 탕문편 (列子 湯問篇) -----	221
2. 웅상(雄常)-----	224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太白逸史 三神五帝本紀) -----	224
웅상(雄常) -----	236
황금가지 / 詩 -----	236
속신국(肅愼國)과 웅상(雄常) -----	238
'뉘른베르크 연대기'와 산해경 -----	241
북방 동이족의 이동 과정 -----	246
웅상(雄常)과 소도(蘇塗), 수두(蘇塗), 휴도(休屠), 솫대,소포^빠띠(stha^pati)의 연관성-----	247
환단고기에서 언급한 웅상-----	251
속신국과 백민국 -----	258
大東史綱卷之一 / 檀氏朝鮮紀 . 대동사강 권1 / 단씨조선기- -----	259
흑피옥 문화중 새와 관련 있는 유물 -----	264
홍산문화 출토유물 -----	265
속신국과 자작나무 -----	266
자작나무에 대한 북방 기마민족의 집단기억 / 1999년 5월호 > , 문화속의 숲, 숲 속의 문화 -----	270
桓 과 檀의 동이사적(東夷史的) 의미-----	273
환(桓)과 단(檀)은 실담어이다 -----	274

1. 불함삼역(不咸三域)-----	280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神 브라흐마(Brahma) -----	280
마누스(Manus)와 힌두(Hindu) 우주관 -----	281
마고성에서 불함산(不咸山)까지 -----	284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싯담어 풀이-----	285
불함삼역(不咸三域) -----	286
봉래(蓬萊) -----	287
방장(方丈)-----	289
영주(瀛州) -----	294
오녀산성(五女山城)은 아사달(阿斯達)이다 -----	299
잃어버린 영토 발해(渤海)-----	302
아막낙섬의 온돌-----	303
발해 사람들의 신대륙 이주 -----	306
보하이족(渤海族)은 누구이고, 코락족(高麗岳族)은 누구인가?308	
러시아 연해주 식량기지에 관한 보고서 -----	311
2. 불함삼역(不咸三域)의 특산 -----	319
자삭방(磁朔方)이란 -----	325
조선(朝鮮)의 어원-----	330
3. 단국(檀國)과 조선(朝鮮) -----	332
4. 봉황(鳳凰)과 주작(朱雀) 그리고 삼족오(三足鳥) -----	343
삼족오의 진실 -----	344
주작(朱雀)은 태양을 물고 오는 새-----	346
백제금동대향로 -----	349
봉래산 금동 향로 / 詩-----	353
5. 청구(靑邱)의 빛(道)-----	353
삼성기(三聖紀) / 신시역대기(神市歷代記) -----	355
태백일사(太白逸史) / 신시본기(神市本紀) -----	357
청구풍황(靑邱風皇) / 詩 -----	378
청구(靑邱)의 빛 -----	380

 환단원류사(桓檀源流史) 제 1권 終.

환단원류사(桓檀源流史) 제 2부 (서비스 페이지)

- 382 / 거울속에 미래
- 383 / 빛의 지구
- 388 / 옥스포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사전, 단군은 샤카무니의 오래전 조상
- 392 / 수메르 문명은 동양인이 세운 것

- 395 / 빛으로부터의 천문학
- 400 / 무우 대륙의 비밀
- 410 / 무우(Mu)라는 명칭의 탄생
- 413 / 무우(Mu) 대륙은 마고성(麻姑城)이다
- 419 / 무우 대륙의 비밀
- 421 /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 / 지상 최초의 대문명
- 424 / 고승원에 있는 수수께끼의 점토판
- 430 / 멕시코 석판의 표상
- 439 / 무우 대륙 최후의 날
- 446 / 사막에 묻힌 위글 대제국 무우제국(Mu . □) / 유사 이전의 대홍수
- 448 / 나아칼 라이브리리
- 452 / 무우(Mu) 대륙의 침몰과 해저 확장설

- 457 / 간지의 탄생 / 하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 461 / 반고(盤古)와 실담어
- 466 / 사요취선(史要聚選) 권일(卷一) 제왕편(帝王編)해설
- 467 / 爾雅(이아) . 釋天(석천)
- 470 / 태세(太歲)와 세양(歲陽), 세음(歲陰)

- 476 / 천축국의 역사, 베다와 간지
- 479 / 힌두교의 우주 싸이클

- 483/ 올려는 천지본음
 483 / 氣는 만물의 근원
 485 / 태초의 힘, 물과 빛과 소리
 486 / 申과 神의 고자(古字)에 대한 고찰
 489 / 神은 示와 申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491 / 올려(律呂)는 천지본음(天地本音)
 492 / 부도지(符都誌)와 올려(律呂)
 506 / 올려(律呂)에 대한 참고자료
 507 / 12지지(十二地支)의 글자 풀이
- 509 / 청구의 빛 제 2부
 509 / 청구(靑邱)의 빛 / 詩
 509 /부상국(扶桑國)과 청구(靑邱) 그리고 배달(倍達)의 뜻
 513 /개벽, 그 혼란으로부터의 지구
 519 /소로리 법씨
 523 /천국의 신화 / 개벽 이후의 환국 3천 3백 년
 537 /고삼분서(古三墳書)
 538 /태고 하도 시기 성(姓) 출현 역사
 541 / 환웅천황께서 내려오신 삼위태백(三危太伯)은 무엇인가?

[환단원류사 구매 안내]

- * 전화 접수: 010-2875-3808
- * 문자 접수: 010-2875-3808
-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 정가 : 55,000원

청구원류

책 소개 : 저자 朴 民宇

환단원류사
처음으로 밝혀진 배라따 대평원 靑丘源流史

靑丘源流



朴民宇 著

桓민족 태고사에 빛나는 동이의 역사, 빛의 땅 靑丘에서 일 만 년을 이어온 위대한 우리 민족에 역사, 만고불변의 진리는 天符印을 가진桓민족의 지혜와 저력 속에 불타고 있다. 그것이 빛의 자손, 광명의 나라임을 밝히고 있다.

[청구원류 구매 안내]

- * 전화 접수: 010-2875-3808
- * 문자 접수: 010-2875-3808
-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박민우)

- * 정가 : 40,000원

청구원류

지금까지 환단원류와 청구원류를 추적해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책의 전편에 속하는 '환단원류사'는 중국의 역사학자 하광악 선생께서 '동이원류사' '염황원류사' 등 원류사 시리즈를 내는 바람에 다음엔 우리 환단사 까지 써 버릴까 봐 근심되어 학자적 양심을 걸고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써야 하겠기에 용기를 내어 집필을 시작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보다 천문학, 비교언어학, 고대 기후학, 지질학, 고고학, 과학 다큐멘터리 등 연구서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無에서 有를 발견하였다는 의미가 담긴 책이다. 그래서 '청구원류'에는 史자를 빼버렸다. 청구라는 역사를 기록한 서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청구원류사'라고 이름 붙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혹자는 필자를 비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당하게 논문을 써서 비판한다면 나도 논문으로 답하겠다. 그냥 숨어서 나를 비판하는 것은 듣지 않을 것이다.

잘 보면 이 책의 구성이 부도지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30년간 연구한 인류의 기

원에 관한 보고서가 부도지에 압축되어 들어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갑자기 신라(新羅)라는 나라가 신비롭게 느껴졌다. 어찌하여 신라(新羅)에 박제상 같은 대학자가 나서서 부도지를 후세에 전하게 하였을까? 물론 징심록(澄心錄) 3교(敎) 15지(誌)에는 인류의 기원에 관한 모든 내용과 神의 섭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으므로 꼭 후세에 전해야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박제상에게 전했느냐 하는 것이 더 궁금했다. 그것은 바로 천축국 이었다.

우리 인류의 시원은 히말라야 북쪽 마고산에서 시작 된 것이며 부도지에도 인류의 기원이 마고성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 그 자체가 천축국 언어였다. 서양의 잉글리시와 라틴어도 모두 천축국 언어에서 나왔다는 것이 대한국인 강상원 박사 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나는 존경하는 강상원 박사님의 동영상강의 전체를 두 번 이상 시청하였고 출간 되는 저서를 모두 구입하여 공부했다. 열정이 없으면 역사 연구 못 한다. 우리 환민족에 광명의 역사가 바로 히말라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환단원류사는 꼭 우리 손으로 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동이원류사 뺏기고 연황원류사 까지 빼앗겨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학자가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는 민족의 혼이다. 우리의 혼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다. 역사를 외면하는 학자에게 한 말씀 하고 싶다.

당신에게 열정이 있다면 부디 좋은 스승을 만나라. 내 개인적 견해로 말하자면 가장 좋은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으로 책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길도(道)자를 이르는 말이다. 道가 책 속에 있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道를 얻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단 한 번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책을 본다면 道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저자 박 민우 배상

청구원류(靑丘源流) 목차

- 거울 속에 미래 / 詩 / 21
- 빛의 지구 / 24
- 수메르(sumer) 문명은 동양인이 세운 것 / 37
- 빛으로부터의 천문학 / 42
- 무우(MU) 대륙의 비밀 / 51
- 무우(Mu)라는 명칭의 탄생 / 67
- 무우(Mu) 대륙은 마고성(麻姑城) / 71
- 무우(Mu) 대륙의 침몰과 해저 확장설 / 86
- 청구(靑邱)의 빛(道) / 93
- 부상국(扶桑國)과 청구(靑邱), 배달(倍達)의 뜻 / 110
- 개벽, 그 혼란으로부터의 지구 / 118
- 소로리 범씨 / 129
- 천국의 신화 / 개벽 이후의 환국 3천 3백 년 / 137
- 고삼분서(古三墳書) / 157
- 태고 하도 시기 성(姓) 출현 역사 / 158
- 삼위태백(三危太伯)은 무엇인가? / 164
- 개벽시대 / 172
- 개벽의 서막 / 178
- 빙하기 이후 황궁씨 계족 천산주 이동 / 186
- 황궁씨 고별 이전에 먼저 성을 떠난 사람들 / 192
- 옥가공 기술에 대한 요약 / 198
- 신속(神俗) / 199
- 2차, 3차 등등 줄이어 마고성을 떠난 사람들 / 207
- 홍산 요하 문명의 멸망 / 215

서자(庶子) 신어(神於) 아이들(-) / 221
 천해(天海)의 동쪽 / 245
 무인(巫人)과 농업의 탄생 / 260
 종교는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 265
 무인(巫人)과 묘인(苗人) / 283
 묘족(苗族)의 탄생 / 294
 도요(陶堯)는 누구인가? / 304
 을곤 이중재 저서 한민족사 / 309
 도요(陶堯)는 누구인가? / 결론 / 320
 삼묘(三苗)의 발생 / 333
 유호씨의 행상(行狀) / 339
 오행(五行)과 삼정(三正) / 366
 유호씨의 행상(行狀) / 결론 / 379
 묘족(苗族) 관련 중국고금지명대사전 인용 / 382
 묘민(苗民) 이동사(移動史) / 386
 구려(九黎)의 흥망사(興亡史) / 410
 공공(共工)과 전옥(顛頊)의 전쟁 / 418
 규원사화(揆園史話)와 단군세기(檀君世紀) / 439
 맺음말 / 455

청구원류(靑丘源流) 부록 목차

천문해자(天文解字)편

서왕모의 심판 / 459

천부경 산스크리트 해설 / 482

천부경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한다 / 493

올바른 역사를 위한 조언 / 516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에 대한 답변 / 535

終 / 576

[청구원류 구매 안내]

- * 전화 접수: 010-2875-3808
- * 문자 접수: 010-2875-3808
-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 정가 : 40,000원

님금나무

책 소개 : 저자 朴 民宇



님금 나무

청소년을 위한 역사 소설

박민수 지음.



환단서림

[님금나무 구매 안내]

- * 전화 접수: 010-2875-3808
- * 문자 접수: 010-2875-3808
-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박민우)

- * 정가 : 15,000원

소설 환단원류사‘님금나무’/ 별책

저자의 말

환단원류사 2편은 '님금나무'와 '청구원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목차를 보시면 청구원류는 환단원류사와 100쪽 정도 겹치기도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지금까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청구와 배달국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광악이 쓴 묘족원류사를 반박하는 진짜 묘족원류사도 들어있습니다. 묘족은 치우의 자손 이잖아요. 그 묘족이 대륙으로 들어온 이동경로를 제가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부도지를 분석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임금이 성군이 아닌것도 밝혀냈습니다. 환웅천황께서 비, 구름, 바람의 신장과 함께 3천인의 개척자를 거느리고 동쪽으로만 왔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서쪽으로도 3천 무리가 떠났습니다. 수메르 유적에서 나온 점토판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도 반박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서자'라고 하는데 서자는 산스크리트로 '시바신이 보낸 사자(파견사)'라는 뜻입니다. 시바신은 우리의 천축국에서 삼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기획에서 수메르로 떠난 민족은 님금나무에서 밝혔고 동방으로 떠난 민족은 청구원류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더 자세하고 방대하게 기록하여 다음에 다시 책으로 낼 것입니다.

뜨거운 관심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환단시편

책 소개 : 저자 朴 民宇

환 단 시 편

桓壇詩篇

朴民宇著



桓壇書林

[환단시편 구매 안내]

- * 전화 접수: 010-2875-3808
- * 문자 접수: 010-2875-3808
-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 박민우)

- * 정가 : 15,000원

차 례

詩 다섯

환단(桓檀)의 詩 / 12
봉래산 금동 향로 / 13
청구(靑邱)에 진다 / 14
학(鶴) 춤 / 16
응기의 일생 / 18

환단시편(桓檀詩篇)

東夷는 천문학자 / 24
東夷가 뚱이 / 25
뚱이(東夷)의 고향은 / 26
환국(桓國)시대 3301년 / 27
律呂꽃 十八字 / 28
天地本音 / 29
몽고 반점 / 30
부도지(符都誌) 제 일장(第一章) / 31
젓만 먹고 못 살다가 / 마고성 전설 / 34
부도(符都)의 유업(遺業) / 35
뿌리를 찾아서 / 36
파내유지국(波奈留之國) / 37
천문(天文) / 38
천문(天文) / 농부의 도(道) / 40
천문(天文) / 어머니의 도(道) / 41
불타천하대본(佛陀天下大本) / 42
천문(天文) / 큰 하늘의 도(道) / 43
桓 천문 / 44
지구의 소리 / 45
제임스 처치워드 / 46
수메르(Sumer) / 47
마누스(Manus) / 48

마누스(Manus) . 마누라(Manura) / 49
1겁(劫)이 하루야 / 50
마누와 마누 사이엔 만반타라(Manvantara) / 51
갑자 나이 / 52
巫의 근원 / 54
巫於 根源 / 55
태백(太伯)의 뜻 / 56
천부동 사투리 / 모두 우리말 / 57
수정성(水精星) 생명 물 / 58
물의 근원(根源) / 59
漢나라 세운 뜻 / 생명물 철학 / 60
천하(天河)에 주(注)하니 / 61
흑수(黑水) / 62
도실가(荀實歌) / 63
동이(東夷)는 콩(荳) 종주(種主) / 64
옥수수 어원 / 66
번데기 / 67
웅상(雄常) / 자작나무 / 68
부상(扶桑) / 70
三神 나무 / 72
상전벽해(桑田碧海) / 73
조선제(朝鮮祭) / 조선(朝鮮)의 어원 / 74
백력(白力)은 / 75
삼성기(三聖紀) 상편 / 안함로(安含老) / 76
표훈천사 운(表訓天詞 云) / 78
오제(五帝)의 주(注)에서 말함 / 84
환(桓), 단(檀)은 / 86
환(桓) 光明, 희(羲) 태양 / 87
불함삼역(不咸三域) / 88
불함삼역(不咸三域) 2 / 90
봉래산 금동 향로 / 91
성종영정 / 92
갑자 상소 / 93
우리말은 어디서 왔을까? / 94

사투리가 표준말 / 95
문자 통일 / 96
표절(剽竊) / 97
十無極 / 題 一 / 98
十無極 / 題 二 / 99
十無極 / 題 三 / 100

실담시편(悉曇詩篇)

 님於 침묵 / 104
 산스크리트 / 105
 못 먹어도 gah / 106
세빠지게(se-pa di khiya) / 107
 소도(蘇塗) / 108
 청구풍황(靑邱風皇) / 109
 조물주 氣 / 110
 뚱(通)가랏따 / 111

민조시학 편집동인 전자우편 좌담

1. 민조시(民調詩)란 무엇인가? / 114
2. 나는 민조시를 이렇게 쓴다? / 122
3. 민조시와 자유시의 차이점은? / 123
 4. 민조시와 시조의 관계? / 124
5. 민조시와 하이쿠와의 관계? / 125
6. 민조시의 전망에 대하여? / 126

환단 시편 주석 / 128

詩 다섯

환단(桓檀)의 詩 / 12
봉래산 금동 향로 / 13
청구(靑邱)에 진다 / 14
학(鶴) 춤 / 16
옹기의 일생 / 18

환단(桓檀)의 詩

桓과檀은 하늘과 땅이 밝은 것이라,
하늘에는桓因께서光明理世하시고,
땅에는檀君께서在世理化 하나이다.

하늘이 밝음으로 지혜가 열리고,
땅도 밝음이니弘益人間 하나이다.

광명의 땅, 광명의 나라 밝은 지혜로 가득 찬 나라,
개벽의 아픔을 몸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 극복한 나라.

아!桓檀氏는 사람으로 태어나天道를 열었으니,
오로지爾與治하여 만세에 모법(母法)을 세웠나이다.

봉래산 금동 향로

봉래산(蓬萊山) 령봉(靈峯) 부상나무에,
고요히 서 있는 저 주작(朱雀)만이,
그 옛날 발해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는 구나.

신선의 발자취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으니,
파도는 씬없이 물결치며,
남명(南冥)으로 날아간 봉새(鵬鳥)가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구만리 하늘 아래 봉새(鵬鳥)가 있으니,
아! 세월은 더디기만 하여라.

청구(靑邱)에 진다

그 땅에,
수숫대 검붉게 널브러져,
흰 곡식 알갱이 풍년 왔어도,

그 가을에,
주인 없는 들판에서,
승냥이 개소리 밤새 울었어도,

그 겨울에,
부엉이 두루미 말뚝가리,
학여울에서 쇠똥지 파먹고 살았어도,

오늘 나의 첩실만 예쁘다면,
그저 잊고 살 것인가!

청구(靑邱),
검푸른 vara의 노을빛이 아름답지 않은가!

빠라 따,
옛 땅에 부귀와 영화는 꿈이라도
영광스럽지 않은가!

밝은 땅,
밝해에서 환웅씨, 복희씨, 청구씨,
어언 칠천 세월을,
부상(扶桑)이라 하였나니.

나,
언제나 옆구리 시려도 외롭지 않은 것은,
배부른 동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마음과 깊은 속으로,
내심 너의 젓무덤 만지며,
오늘도 나는 태양새 되어,
소금땅 시치며 청구(靑邱)에 진다.

학(鶴) 춤

긴 시간,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숲에 서 있는 학(鶴).

학(鶴)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학(鶴)에게 다가올 그 누군가에게
학(鶴)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지난겨울에,
혼자서 그토록 발버둥 치고,
몸부림도 쳤지만,
아무도 학(鶴)을 알아주지 않았다.

반평생,
학(鶴)은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다.

기다리는 것은 때가 있다.
산송장이란 말이 실감 날 때가 있다.

옹기의 일생

나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는 동이(東夷)였다.

60년 전,

나는 군위 읍내 장터에 있었다.

이놈 저놈 말고도 큰놈, 작은놈, 똥보, 흘쭉이, 큰동이, 작은동이, 중두리, 망데기, 바탱이, 뚝배기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밑동이 좁고 배가 불룩했으므로 '항아리'라 불렀다.

그 날 등그렇게 터진 아가리 위로 모자를 쓰고,

새신랑 지게 타고 수서리로 왔다.

그러던 첫해에는 새색시 머리 위에 가마도 타고 물도 길었으며,

그해 겨울 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있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은 '독(獨)'이었다.

지독하게 추운 겨울이 가고 새색시는 양지바른 곳에 나를 두고, 메주와 소금을 넣고 또 배가 잔뜩 부르게 물도 주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은 '장독'이 되었다.

어언 60년 세월에 간장독, 된장독, 쌀독, 술독으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면서 나도 늙어갔다.

할머니가 된 그 색시는 대구에 사는 막내딸 집에 갔다.

나도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예쁜 막내딸의 이름은 '엄지엄마'이다.

모두가 그렇게 부른다.

그곳에서 나는 항아리 인생 최고의 달콤새콤함을 맛보았다.

여름 초입 새파란 매실을 가득히 넣고 흑설탕 20 키로에 매실이 곱삭아,

나로 하여금 잉태한 매실은 검은색으로 태어났다.

새콤달콤함의 매실을 낳으려 얼마나 애태웠던가,

내 속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오랜 세월 타인지 한쪽 손잡이가 떨어졌다.
이제 내 이름은 '단지(斷指)'이다.

이듬해 겨울, 검은 천을 드리운 할머니는 수서리 뒷산으로 가고,
나는 동구 밖으로 나와 쓰레기 더미 옆에서 나를 데리고 갈 누군가를 기다고
있었다.

첫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동(東)하고 소리 냈다.

두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通)하고 소리 냈다.

세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統)하고 소리 냈다.

네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洞)하고 소리 냈다.

다섯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桶)하고 소리 냈다.

여섯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筒)하고 소리 냈다.

일곱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痛)하고 소리 냈다.

여덟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働)하고 소리 냈다.

아홉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통하고 소리 냈다.

열 번째 아이가 돌팔매로 나를 때리는데,
그만, 특하고 소리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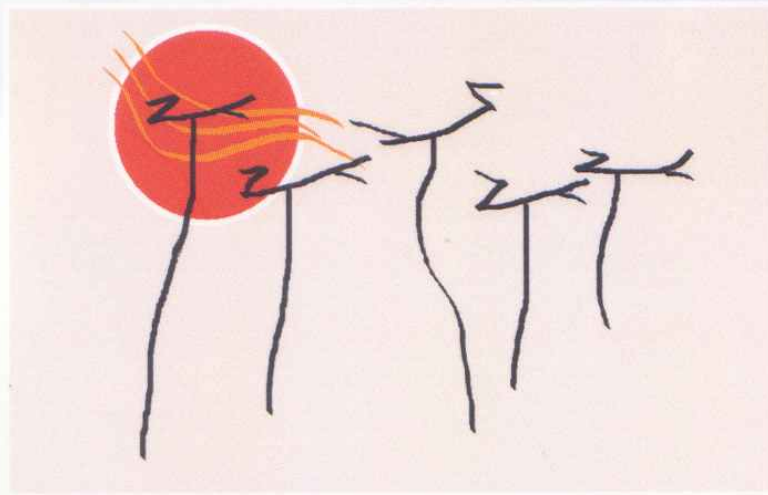
아이들은 가버리고 없지만 이제 곧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나를 망치로 때리던가, 아니면 나를 높이 쳐들어 땅에 내리칠 것이다.

한평생 외로운 독,
서럽기도 하지만 나도 살 만큼 살았다.
지금은 단지,
그 색시 품에 옹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桓檀源流史

흑수론(黑水論)

桓檀 上元甲子 10,956년 10월 20일
三聖宮 開天 35年 開天大祭 방문 기념



주최 : 돈황문명학술원 · 환단원류사학회

환단원류사 . 데모판 . 흑수론 새 책 소개(구입 안내)

가격 : 2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2-2875-3808-11 (환단서림)

전화 문자 주문만 가능 : 010-2875-3808

끝